

한국에 유입된 사과우렁이 속 2종
- *Pomacea canaliculata*와 *P. insularus*에 대하여 -

정평림¹, 박갑만², 정영현¹

인하의대 기생충학교실¹, 연세의대 기생충학교실²

사과우렁이과 Pilidae (Ampullariidae) Gray, 1847에 속하는 사과우렁이 (*Pomacea* spp.)는 열대산 패류의 일종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는 종으로 잘 알려져 왔다. 특히, 남미, 중남미, 서인도, 필리핀 등지에 분포되고 있으며, 태국에는 1984년 처음으로 그 유입이 보고된 바 있다.

왕우렁이 *Pomacea canaliculata* (Orbigny)의 패각은 두껍고 모양은 난형에 가까우며 나뭇은 낮다. 완전히 자란 성패의 크기는 각폭이 40-50 mm, 각고가 45-65 mm로서 비교적 대형이다. 패각은 황색 또는 황록색이다. 체층은 둥글고 매끈하며 각고의 4/5를 차지한다. 나층은 4-5층이며 각정부가 침식되기도 한다. 각구는 난형이며, 넓은 입술은 일반적으로 두껍고 밖으로 젖혀져 있다. 각구의 높이는 대략 패각의 최장 길이에 3/4을 차지한다. 뚜껑은 보통 두껍고 안쪽 표면은 광택이 나며 동심원상으로 선이 뚜렷하다.

섬사과우렁이 *Pomacea insularus* (Orbigny)의 패각은 중형부터 대형이며 약간 두껍지만 왕우렁이보다는 두껍지 않다. 모양은 난형 또는 난형에 가깝고 나뭇은 낮다. 크기는 완전한 성패가 각폭이 25-40mm, 각고가 30-45 mm 정도이다. 나층은 4와 1/4이며, 체층은 둥글다. 패각은 황색 또는 연황색이며 체층에는 둥근 무늬가 약하게 나 있다. 각구는 넓고 둥글며 입술은 흰색 또는 적황색을 띄며 얇고 약간 뒤로 젖혀져 있다. 각구의 높이는 각고의 3/4을 넘지 않는다. 뚜껑은 보통 두껍고 광택이 나며 녹황색으로 핵을 가지며 안쪽면은 나선형 선이 뚜렷하다. 뚜껑의 가장자리는 두껍고 넓다.

Pilidae에 속하는 사과우렁이들은 그들의 식습관 때문에 농작물과 주변 생태계에 많은 피해를 주어 문제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쥐에 기생하는 폐선충의 일종인 광동주혈선충 (*Angiostrongylus cantonensis*)의 패류중간숙주로 알려져 왔다. 사람이 이 패류를 오섭했을 경우 본 선충의 유충이 중추신경계에 침입하여 치명적인 호산구성 수막뇌염 (eosinophilic meningoencephalitis)를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 이래, 상기 2종의 사과우렁이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 종들은 외국으로부터 양식업자들에 의해 식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전남 고흥, 진도지역 및 경남 김해, 진해지역를 중심으로 주로 남부지역의 강이나 하천에 서식하면서 이미 생활사가 이어져 야생화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